

## 육계 사양관리시 주의사항 체크(II)

☞ 지난호에 이어 계속

### 4) 병아리의 선택과 입추한 병아리의 취급

건강하고 질 좋은 육계병아리이고 35g 이상인 병아리, 난계대 질병으로부터 감염(마이코플라즈마, 살모넬라 등)이 안된 신용 있는 종계장으로부터 구입되어 부화된 병아리로 시작하는 입추가 가장 이상적이나 필드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의 폭이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축주들은 병아리를 받고 난 뒤 경험적으로 상태를 파악하거나 필드 수의사들의 정보와 다른 부화장 소식을 접해 믿을 수 있는 거래처를 선정하여 거래하는 것이 더욱 필요 하겠다. 그리고 병아리가 물이나 사료를 먹기 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원거리 수송이나, 악천우는 병아리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상적인 것은 부화후 6~12시간안에 입추장소로 수송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한계군의 병아리는 같은 종계군으로 부터 발생된 병아리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병아리가 도착하면 30분~1시간 정도는 육추기 바깥쪽 계사내에 상자채로 넣어 안정을 취하고 특히 겨울철 수송은 병아리가 육추기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도착하기 때문에, 갑자기 고온 환경하에 입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계사내 온도에 적응한 다음 육추기 안쪽으로



유 종 철  
네오바이오 대표 /수의사

로 넣어준다.

### 5) 급수, 급이관리

병아리에 냉수를 급여하면 설사의 원인이 되어 쇠약하게 되므로 급수기의 기온을 확인하여 수온이 25℃ 전후로 해준다. 첫모이부터 3~4일간은 양계의 링저 솔루션과 대사 촉진제를 타서 급여하는 것이 좋다.

보통 어린병아리 급수기는 800수당 6리터용 6개가 필요하고 입추 4일째부터는 자동급수기



시에 일교차가 10℃ 이상의 상태가 계속되면 복수증이 유발될 위험이 있으니 온도차가 적게 나도록 노력을 한다. 그리고 병아리가 증체됨에 따라 급이기, 급수기 간격을 넓힘과 동시에 환기 및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콕시듐과 같은 원충성질병의 발생을 억제한다. 보통 설파제(티엠펜에스)를 권장하고 있다.

#### 5. 4주령의 사양관리

를 병용하고 12일째까지 점진적으로 완전히 교체 한다. 사료 급이는 첫모이때는 급이판을 사료포대나 병아리 운송박스를 사용하여 만들어 주는데 보통 800수당 45cm · 60cm · 3cm의 것으로 6개정도 사용한다. 급이 후 4일째부터는 자동급이기를 병용하고 급이후 12일째까지는 점진적으로 모두 교체한다. 자동급이기의 간격은 1수당 2.5~3cm 정도가 필요하다.

#### 4. 3주령의 사양관리

이 시기는 병아리의 체중이 첫 모이 때의 약 15배가되는 시기로 제1차 환우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중요한 점은 모계로부터 받은 전염병과 관계되는 이행항체도 없어지는 시기이므로 전염병 관리에도 무척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폐온

병아리도 눈에 띄게 커지고 강건해지므로 폐온과 동시에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환기량을 늘려서 암모니아가스, 탄산가스를 제거하여 호흡기 계통의 질병 발생방지 및 기타 폐사방지에 노력한다. 급이기 및 급수기의 높이를 조절해주고 사료 섭취량의 확인 한다. 그리고 4주령 말기에 초기 환우가 완료 되는데 초기 환우가 늦어지면 이전의 사양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살펴보고 후기 펠렛 사료로 교체 날짜를 맞추어 본다.

#### 6. 5주령 이후의 사양관리

더욱 성장이 빨라지는 시기이므로 실내온도, 환기, 급이, 급수는 매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 양계의 링거 솔루션 요법

링거액은 치료 요법은 수의학에서는 환축들에게는 몸의 기력을 되찾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계에서는 개체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계군 관리를 위하여 마시는 링거액을 개발하게 되었다. 링거액의 기술적인 노하우는 물을 마시는 것 보다 몇 배 빠르게 몸속으로 흡수되어 신속히 에너지 및 이온, 수분을 공급하는 이온화 기술이다. 처치된 이온 물은 닭 몸에 빨리 흡수되어 열전을 빨리 움직이게 하고, 각종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가 외부로 빨리 배출되어 혈액 순환을 개선하면서 질병 회복도 빨라진다.

따라서 양계에서의 링거 요법의 목적은 신진대사(소화 흡수 해독 배출 등의 순환작용)의 능력을 향상 시키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켜 병을 물리칠 수 있는 저항력을 길러 주어 주 원인 질병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또한 초기 주령까지는 난황 흡수기간으로 생리적인 지방간증 기간이므로 간, 신장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예전의 초기 클리닝 프로그램은 입추 당일부터 항생제 처치를 하였는데 2004년부터 동사에서 링거 솔루션 요법과 간/신장 활성 대사촉진제를 투여한 결과 음수량 증대와 난황흡수 촉진, 초기 폐사 억제 등으로 육계 성적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었다.

것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보통은 일반 보통 영양제인 지용성 비타민제제와 아미노산이 들어 있는 제제들을 사용하여 후기 증체를 노리는 농장들이 대부분인데 요즘은 단백질을 함유한 고에너지 양계용 종합 영양제가 출

시되어 있으므로 잘 선택하여, 농장에서 원하는 것만큼 사료 효율이 좋아지고 설사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 7. 출하작업

출하는 많은 인원을 요하는 중노동이고 잘 키워 놓은 닭이라 할지라도 출하 작업이 못되면 육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력의 결정체인 상품을 부주의와 거친 작업으로 등외품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는 출하 3시간 전에는 적어도 급이기를 비워두고 포획작업은 가능한 어두운 상태에서 할 것이며 출하 1주일 전에는 항생제 계통의 약제의 투여는 자제한다. 그러나 출하시에도 링거액을 타준 물은 계속 급여한다.

출하후 계사를 완전히 청소 소독하고 다음 입추까지 최소한 20일이상 계사를 비워 두는 것이 상책이나 요즘은 발효제를 이용하여 간이 소독을 하고 연속 입추하는 농장들이 많으나 질병과 방역 부분에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질병 느낌을 받았다면 다음 입추 준비에서는 신중하게 소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육계 사양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실 입추를 하고 나면 매일, 매일 어려운 점과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의도한 내용과 틀리게 발전할 수 있고 각 농장의 상황에 따라 운영의 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농장에 맞는 사양관리와 방역관리는 각지역 수의사들이나 필드 서비스맨들과 의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매일, 매일 고생하시는 양계인 여러분 “화이팅!!” 양계